

#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법정으로

무안군, 전남도 상대 150억원 청구소송 제기

道·개발공사, “명분 없다” 부적절 입장 고수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무안군은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 29일 광주지법에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안군은 서울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의 내세워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150억원을 요구했다.

또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무안군은 올 초 민간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움직임과 별도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그동안 법적소송을 위한 법률자문과 화순 광덕지구 등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소송을 준비해 왔다.

무안군은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한 유사한 사례도 있고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인 오룡지구 개발 등을 위해 서도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규모 등이 밝혀지면 2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로 민간단체의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는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생긴 이익금을 무안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도 설치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익금을 무안에 줄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개발 당시 법과 조례에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는 만큼 법정에서 개발이익금 분쟁을 마무리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남악신도시는 2000년 8월 별도의 설치 조례를 통해 개발했고 당시 무안군도 협약체결에 참여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소송 대리인을 내세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재판 결과와 함께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규모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일 청소년 문화, 희망을 찾다’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청소년 문화포럼’이 지난 31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 ‘한일 청소년 문화, 이곳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남·경남·부산·제주도와 일본의 시가·후쿠오카·나가사키·아마구치현에서 선발된 중학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종훈 전남도부교육감 등이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 그린벨트 4곳 친환경누리길 조성

나주와 담양 등 전남지역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누리길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나주 금당누리길 등 개발제한구역내 4곳에 자연경관을 연계한 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로와 농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 기반시설 사업에 66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부터 이 기반시설비 가운데 30% 가량은 누리길 등 환경·문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개발억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맞는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에는 20억원을 들여 담양 가사문화 누리길 등 4곳을 조성했다.

전남도는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 광양항 묘도 매립장 공모방식으로 개발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확장하면서 생기는 준설토로 조성한 묘도 매립장을 공모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토지감정평가가 끝나는 10월 중 공모 일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전의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

은 최초 제안자가 받는 가점이 너무

커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방식

을택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묘도 지역을 애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을 최대 40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균형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는 매각 형태로 제공한다.

여의도 면적(290만m<sup>2</sup>) 1,181인 312만m<sup>2</sup> 규모의 광양항 묘도 매립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연합뉴스

## 올 장마 6일 끝날 듯… 역대 최장 ‘51일’

이달 초 ‘마른’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지난달 17일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장마가 다음달 6일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를 뿐 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 지난 31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북한 쪽으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장마전선이 이동하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장마는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51일간 지속,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74년과 1980년 두 차례 45일간 이어진 장마보다 6일 더 길어졌다.

올 장마는 남부 지역의 경우 지난달 19일 중부에서는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지난 30일까지 중부 지역 평균 강수량은 482.1mm로 평년의 131% 수준을 기록했지만, 남부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269.7mm(평년 대비 77%), 제주도는 111.7

mm로 평년의 28%에 불과한 ‘반쪽 장마’ 양상을 보였다.

올해 장마전선은 예년과 달리 북한과 중부지역에서부터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달 초순 중부지역을 오르내리며 집중 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를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은 확장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대 야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 RDF 사업 투자자 모집

〈기연성 폐기물 연료화〉

### 10월 선정… 현대·포스코·GS·태영건설 등 관심

광주시가 ‘도심 쓰레기에서 캐는 선탑산사업’으로 불릴 만큼 친환경 시설인 기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까지 기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자 접수를 받는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앙·지방 건설사 등 48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태영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 4곳이 광주시에 투자질의서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능력을 평가한 뒤 기술력, 가격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께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광주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지역 건설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만큼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가 커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섹터(민·관 합동법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자 45%, 시비 5%, 국비 50%가 투입되며, 총 공사비는 1154억원이다. 민간 투자자는 준공 후 15년간 운영한 뒤

운영권을 시에 넘기게 된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 산 26번지 일대 2만1900m<sup>2</sup>에 하루 800t 처리 규모로 건설되는 RDF시설은 내년 초 공해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RDF시설은 광역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불에 타는 물질과 타지 않는 물질, 재활용품 등으로 선별해서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매립하고, 불에 타는 물질은 건조한 후 고형 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이다.

광주시 송용수 폐기물시설담당은 “이번에 설치되는 RDF는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고, 오히려 고형연료 판매로 인한 수익의 창출과 폐기물 매립량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RDF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은 친환경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이정식



최동욱

## 전남대 108억 국책연구 수행

이정식·최동욱·김성길 교수 ‘골든시드 프로젝트’ 책임자

종자강국 실현사업… 2017년까지 전복·김·양파 연구 진행

체 구조

연구’를 수행한다. 또 김 교수는 총 12억 7200만원의 연구비로 국내 양파 분자육종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전남대 교수들은 이 가운데 전복, 김, 양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수행한 뒤 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된다.

이 교수는 68억3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우수형질을 보유한 전복 유전자를 활용해 2021년까지 9년(4년+5년) 동안 총 사업비 4911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체 구조 연구’를 수행한다. 또 김 교수는 총 12억 7200만원의 연구비로 국내 양파 분자육종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남해 EEZ 안 글재 채취에 따른 이업피해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비는 15억6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이달부터 20개월간 조사를 실시한다.

/체희경기자 chae@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금)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려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으로 다음 학기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아침반 : 18:30~21:00

- 수료 후 톤전
  - 1. 단계(기초, 심화) 연수료 시료금 수령 및 수료증 수여
  - 2. 단계(기초, 심화) 연수료 시료금 수령 및 수료증 수여

- 연수과정 중 국가인증 한자·한글·한문지도사 자격증 취득 가능
-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 각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